

천국에서 성도들의 보상과 행복의 차이

성경말씀: 고전3:1-17

목사의 책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준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 구원
지금까지 구원 바로 알기 등 구원에 대해 많은 설교, 강해, 최대한 바르게 알리려고 노력했다.
지난주 미국 시카고에서 온 편지

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의 구원, 기쁨,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

바른 것을 알려서 한 영혼 구원, 그 뒤 바르게 성장하도록 말씀의 순전한 젖 제공, 주님께 영광
지난주 오후 <칭의와 성화와 구원의 정의와 차이>

엡2:8-10, 칭의 즉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일조하지 못한다. 그러나 구원 이후 성화, 선한 행위
선한 행위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

즉각적인 반응: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낙태돼서 죽은 아이, 어려서 죽은 아이, 정신박약아

큰 사역을 감당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좋은 환경에서 자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은데 이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보상하면 불공평하다. 영원무궁토록 차이
어떤 사람의 표현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개념”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서 성도들의 보상과 행복의 정의와 차이>, 보상과 행복의 정의, 차이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등 설명

성화의 과정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1-4), 바울과 아볼로파, 파당은 육신적인 일이다(3).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일한다. 목사, 집사, 인도자, 섬김 부서, 교사, 찬양대, 주방, 주차, 예배만
참석

하나님 보시기에 차별이 있는가? 일단 없다(3:5).

서로 다른 일을 한다. 그 결과 교회가 자라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7).

다만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다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8).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일을 쌓아야 한다(11). 바울, 아볼로, 목사 No!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 기초 위에 자기의 일 즉 행위를 세운다(12).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짚

각 사람의 일이 불에 의해 드러난다(13).

남아 있으면 보상(14). 다 타면 보상은 없고 구원만(15). 왕관을 쓴 사람, 개털 모자를 쓴 사람 등
즉 우리의 모든 행위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것이 있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있다.

고후5:10, 우리 몸으로 행한 행위 심판, 어디서. 휴거(부활) 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자기 재산을 세 사람에게 그들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맡긴다
(25:15). 5, 2, 1달란트, 회계보고 하는데 5달란트(더하기 5)나 2달란트(더하기 2) 받은 사람
동일한 칭찬(21, 23),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누가복음 19장에는 므나 비유, 10므나, 열 명에게 각각 1므나씩 나누어 줌

한 사람은 1므나로 10므나, 열 도시 권세, 다른 사람은 1므나로 5므나, 다섯 도시 권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므나: 보상이 다르다.

즉 달란트의 경우 맡긴 양은 다르지만 같은 보상, 므나의 경우 맡긴 양은 같지만 다른 보상

달란트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보상의 기준: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였느냐가 중요하다. 그 결과는 같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

므나의 경우: 동일한 복음, 동일한 과제, 하나님의 말씀 공유,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즉 증언 문제

모두가 같은 선에서 출발한다. 이 경우 보상은 성취도에 따라 다르다. 이 경우 신실하게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많은 일이 맡겨진다. 사도 바울처럼, 결국 더 많은 보상

어떤 보상을 받는가?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산다. 그러므로 거기서의 보상을 돈이나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즉 물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물질적인 개념이 가득 차 있다. 즉 “누구는 영원토록 부자가 되고 누구는 영원토록 가난한 자가 된다.” 이것이 문제, 왕관, 개털 모자 개념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들(고전2:9).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과는 다르다.

바울의 다른 표현: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롬14:7) 즉 천국에서의 보상은 이 세상 차원의 보상이 아니다(아파트, 차 등).

이에 대해 로마서 2장 6-11절은 이렇게 말한다.

두 종류의 사람: 6절 읽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7), 진노를 쌓는 사람(8)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의 보상(10): 영광과 존귀와 화평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화평을 누린다.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것이 있다: 영원한 생명, 거룩함, 화평, 영적인 몸 등

그런데 같은 성도라도 영광과 존귀는 서로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조나단 에드워즈 Romans

2:10 commentary

즉 내가 누릴 영광과 존귀는 바울이나 모세와 다르다. 영원히 다르다. 고전15:40-41

천상의 존재들: 미가엘, 가브리엘, 정사와 권능과 통치 등 여러 부류의 천사들

그러면 나는 바울보다 못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므로 영원무궁토록 그를 부러워하고 시기할까?

바울은 나를 무시할까?

시기, 질투, 남을 무시하는 것 등이 없는 데가 천국이다.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는 서로 다르지만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동일하게 행복할 것이다. 에드워즈의 결론(나도 동의)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아닐 것이다.

계21:3-7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신다. 바울 더 많이, 우리는 더 적게 아닐 것이다. 모두가 동일하게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 뒤에는 내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면 된다.

고전4:1-2, 3:16-17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He is good!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면 된다.

거룩하게 살면 된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합당하게 처리하신다.

우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지키고 알리려고 노력하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하자. 성장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선하게 이루어주신다. 살롬